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후원과 참여, 소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 www.facebook.com/philasesamo

2~3월의 주요 활동

2월 4일(토), 11일(토), 25일(토) 오후 4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라델피아 7~9차 촛불집회 (첼튼햄 H마트 앞)

소식지와 기억팔찌를 계속 나눕니다.

- 3월 19일(일) 첼튼햄 H마트
- 3월 24일(금) 어퍼다비 H마트
- 3월 25일(토)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 4월 2일(일) 체리힐 H마트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예배****

4월 16일(일) 오후 4시~6시
필라델피아 선원선교회 (Seamen's Church Institute of Philadelphia, 475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3)



(박 전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

나의 믿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이다. 천주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조국 폴란드를 방문해서 이 예수의 말을 이렇게 풀었다.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선언은 그의 조국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과 구소련의 공산주의 해체 나아가 공산주의 몰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이런 기록을 남긴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가 권력자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가라는 이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다.

예수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켰다. 나의 믿음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세기에 만연했던 이념의 장벽을 허물었다. 그 역시 믿음의 힘이다. 비록 두 재판관의 선언에 보충의견이라는 토가 달렸지만, 그들의 선언으로 나의 모국 대한민국은 진정 민국(民國)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필라 세사모 회원 김영근)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탄핵인용 결정은 났지만,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낙담한 심정을 표현했다. 고 유은 양 아버지 유경근씨는 “왜,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 오준영 군 아버지 오홍진씨는 “왜 우리 아이들 소중한 생명이 탄핵 사유에서 빠졌나...”며 낙담했다.

고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씨는 “축제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같은 마음으로 축제 마음을 못 낸다는 게... 외롭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심정을 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 등 여전히 남은 세월호 관련 의혹과 진상규명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초심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이기에 쓰러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월호 선체인양, 4월 가능?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만인 오는 4월 인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밀물과 썰물의 격차가 작고 조류가 느려지는 ‘소조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5일쯤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인양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텐덤 리프팅(tandem lifting)’ 방식이다. 현재 세월호 선체 아래에 리프팅빔을 설치해 인양줄 66개를 연결한 상태이며, 이 인양줄을 재킹바지선에 설치된 유압잭에 연결해 끌어당겨 세월호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기상여건과 인양방식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파도가 거세지면 인양 날짜가 미뤄질 것이고, 또한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텐덤 리프팅 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4월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인양에 있어 변수 등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공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박대통령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가) 피청구인이 하였어야 하는 행위
피청구인은 늦어도 10:00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즉시 재난에 관한 국가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주요 관계기관과의 직통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관계기관의 재난대응을 총괄·지휘·감독하였어야 한다. 당일 10:00경 세월호 주위 해역에 승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10대 이상의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승객들이 퇴선하여 모두 표류하더라도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헬기 및 항공기도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었다. (68쪽)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인력과 물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구조 및 위기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71쪽)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견딜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72쪽)

...피청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73쪽)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야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74쪽)

출처: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08620.pdf>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 : 필라델피아 선원선교센터 데이비드 라이드 목사



(노란리본을 가슴에 차고 선원선교센터를 안내 중인 데이비드 라이드 목사)

오는 4월 16일 일요일 오후 4시, 필라 세사모와 미국선원선교센터(Seamen's Church Institute of Philadelphia) 공동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모임이 선원선교센터 예배당에서 추모예배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선원선교센터는 1843년 영국성공회 신부가 설립한 선교단체로, 필라 센터에서는 델라웨어 강을 따라 인근 부두에 입항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봉사과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전회의를 위해 센터를 방문한 지난 2월 3일, 데이비드 라이드(David Reid) 목사와 동료들은 라이드 목사의 부인이 만들어 준 노란 리본을 가슴에 차고 필라세사모 회원들을 맞아주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직접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벽안의 목사에게 세월호는 무엇인지 물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필라세사모 : 세월호 참사 뉴스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었는지요?

라이드 목사 : 처음 세월호 사고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미 해군에 복무 중이었던 1968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그 후로 여러차례 한국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입양한] 제 막내딸 현(Hyun)도 한국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젠 십대 아이 둘을 둔 38살의 엄마가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내 딸아이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을 보게 됩니다.

필라세사모 :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뉴스를 어떻게 접하고 계신가요? 참고하시는 특정 매체나 채널이 있으신지요? 해외에서 세월호 뉴스를 어떻게 접하는지 알고 싶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라이드 목사 : 저는 전 세계 선원들의 전문직협회인 해상협회(The Nautical Institute)의 부회원으로, 해상 관련 모든 뉴스와 사건에 대한 소식을 대부분의 일반인들보다는 더 밀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필라세사모 : 세월호는 목사님께 어떤 의미인지요? (참사 후 정부의 대응방식을 지켜본 한국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세월호는 모두가 책임을 느낀 비극적인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무능함과 부패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깨운 일종의 경종이었습니다.)

라이드 목사 : 세월호 참사는 무사안일주의의 결과라고 봅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엔지니어링 및 경영 전공 이학석사 권이석이 2016년 2월 발표한 훌륭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일어난 일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사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요소가 있었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가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각자의 실패가 연달아 발생해 결합된 결과 전형적인 “스위스 치즈 모델”이 된 것입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은 2000년에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James Reason)이 주장한 것인데요, 리즌은 시스템의 ‘허점들’이 일렬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안전 장치들이 작동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참사의 관계자들 중 한 명이 과적을 방지했거나 과적한 채로 출항하는 것을 막았다면, 안전 장치들도 작동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치즈에서처럼 모든 구멍(허점)들이 일렬로 늘어지게 되면, 안전 장치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여러 해양 사고의 근본적 원인들은 시스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필라세사모 : 필라델피아 선원선교센터는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다른 해양사고들도 기리는지요? (몇몇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또 목사님이 보시기에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있는지요?

라이드 목사, “참사 재발방지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

(3면에서 이어짐)

라이드 목사: 선원선교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사고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의 사고들에 주로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 (네 명의 군목 이야기로 유명한) 1943년 S.S. 도체스터호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로 67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1983년 S. S. 마린일렉트릭호 사고로 31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로버트 프럼프(Rober Frump)의 <바다가 그들을 놓아줄 때까지 *Until the Sea Shall Free Them*>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추모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선원선교센터 페이스북에 영국의 M. V.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고를 기억하는 자료를 올렸는데, 이 선박은 1987년 3월 6일 벨기에 제브루헤 항 입구에서 전복되어 1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션(Sheen) 재판관에 따르면 “해당 선박회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대충 대충 병에 감염’되었다”고 했습니다.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호는 3월 6일 밤에 선수문을 활짝 열려놓은 채 급하게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 문을 닫아야했던 선원은 잠을 자고 있었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활짝 열린 문으로 바닷물이 들어왔고 배는 기울어져 빠르게 가라 앉았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캐빈에 갇힌 채로 말이지요.

필라세사모: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어떻게 세월호를 기억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이드 목사: 필라세사모와 선원선교센터는 선원과 해상 커뮤니티를 위해 지어진 예배당인 선원선교센터 예배당에서 추모예배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세월호 이름 ‘SEWOL과 희생자 수인 ‘304’, 그리고 사고일인 ‘April 16, 2014’(2014년 4월 16일)가 새겨진 선내 시종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세월호’ 시종은 304명을 기리기 위해 선원선교회 예배당에 영구 설치될 예정이고요.

필라세사모: 한국 내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 (4.16 해외연대로도 알려진) 전 세계 한인들이 그 동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끌어온 여러 활동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이런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이드 목사: 사실 이제 막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열정과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참 중요합니다. 해양사고는 다른 운송수단들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필라세사모: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의 향후 활동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라이드 목사: 인식과 대화가 중요한 도구입니다. 로타리클럽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가진 연사들을 찾고 있는 봉사단체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매년 4월 16일도 참사가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고요.

필라세사모: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이드 목사: 1980년 영국의 유조선 ‘더비셔’호가 선원의 부인 2명을 포함해 총 44명이 승선한 채로 가라앉았습니다. 영국의 해양사고 사상 가장 큰 선박이었습니다. 1987년 이루어진 첫 조사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더비셔가족협의회(Derbyshire Family Association)를 구성해 20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펼쳤습니다. 1981년 영국 정부는 공개조사를 실행하지 않았으나, 더비셔가족협의회 노력으로 영국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20년 동안 지속된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조사위는 지난 2000년 더비셔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와 악천후이 조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가디언지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가장 나이가 어린 선원은 17살의 아드리안 스토틀(Adrian Stott)로 체셔(Cheshire)의 매클스필드(Macclesfield) 출신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의 첫번째 원양 항해였으며, 배를 타러 가면서 그가 맨체스터 공항에서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돌아올 거예요”였습니다.

더비셔가족협의회는 영국 정부에게 철저한 공개조사를 실시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활동으로 더비셔 호에 승선했던 희생자 모두를 기린 것입니다. 그래야 참사의 조사결과나 교훈을 토대로 보다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더비셔호 관련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k/the-northerner/2012/oct/04/marine-life-transport>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1675801.stm

Seamen's Church Institute Commemorates the Sewol Ferry Victims : Chaplain David Reid at SCI on the tragedy and the memorial service on April 16, 2017



(Mr. Reid with a yellow ribbon on his chest to honor the victims of Sewol Ferry is showing the SCI Chapel to SESAMO members after a meeting in February.)

Seamen's Church Institute of Philadelphia(SCI) will have a memorial service for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on its 3rd anniversary, in tandem with Philadelphia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aka SESAMO). Sewol Ferry capsized off the coast of South Korea on April 16, 2014, and took 304 lives, mostly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way to a field trip. Appreciating the SCI's effort to remember the disaster and its victims, Philadelphia SESAMO asked Mr. David Reid, the workplace chaplain at SCI, to share his story and view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s well as SCI's plan for the memorial service on April 16. Below is the full interview.

SESAMO: Could you tell us when and how you first heard about the Sewol-Ho incident? How did you feel then, and why?

Reid : I remember hearing about the Sewol on the news. Having been to Korea many times with my first visit in 1968 when I was in the Navy, I do have a sense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My youngest daughter Hyun was born in Seoul and came to the USA when she was 4 years old. She is now 38, married with two teenagers, so I see Korea today through the lens of my daughter's life.

SESAMO: How have you been able to follow the news on Sewol-Ho for the last 3 years? Any specific news media, or another channel you refer to? We wonder how people outside Korea follow up the Sewol-Ho news in general.

Reid : I am an Associate Fellow in the Nautical Institute, the global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mariners and so I am generally following all maritime news and events closer than most.

SESAMO: What does Sewol-Ho mean to you? (For a lot of Korean people who observed how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incident, it was a wake-up call to acknowledge and do something about the institutional incompetency and corruption, as well as a tragic loss for which they all felt responsible.)

Reid : The Sewol incident is the consequence of complacency, from my readings of the excellent report done by Yisug Kwon, Msc graduate student at MIT in February 2016, it is clear that what happened on the morning of April 16, 2014 was the consequence of a series of events. There were many contributing factors and while it may be true that the respective parties did not realize that their individual failure would lead to the tragedy, the combined effect when aligned became the classic "Swiss Cheese" paradigm. The Swiss Cheese paradigm was developed by James Reason in 2000. Reason put forward the idea that safety barriers would work as long as the 'holes' in the system do not align themselves. In other words had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e Sewol story prevented the ferry from being loaded excessively or not allowing it to sail over its loadline, then the barrier system would have worked. However when all the holes in the Swiss Cheese align there is no barrier at all. In many cases like the Sewol the root causes are systemic and that is why a thorough open and transparent inquiry is essential to make sure that this can never happen again.

SESAMO: Does the Seamen's Church of Philadelphia commemorate other incidents at sea like the Sewol-Ho disaster? (Please name some of the incidents.) If so, is there any incident comparable to the Sewol-Ho case in any ways?

Mr. Reid, "a thorough open and transparent inquiry is essential to make sure that this can never happen again"

(continued from page 5)

Reid : The Seamen's Church does reflect on incidents like the Sewol, in the past we have been focused on incidents that were closer to Philadelphia such as the loss of the S.S. Dorchester 1n 1943 (The famous story of the Four Chaplains) with the loss of 674 lives and the loss of the S.S. Marine Electric in 1983 (Until the Sea Shall Free Them by Robert Frump.) with the loss of 31 lives. However this year we decided to expand our remembrance and recently we posted on our Facebook site the memory of the incident involving the British Ferry, M.V. Herald of Free Enterprise which capsized at the entrance to Zeebrugge harbor on March 6, 1987 with the loss of 193 lives. An incident that has some similarity to the Sewol and Lord Justice Sheen who led the inquiry said, "the company had been "infected with the disease of sloppiness" from the top down."

On the night of March 6th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left port in such haste with the bow doors wide open, the seaman who was supposed to close them was sleeping and nobody checked, they just sailed out, the sea entered the open door and the ship sank heeled over rapidly, many passengers were trapped in their cabins.

SESAMO: Please tell us briefly how you are planning to commemorate the 3rd anniversary of the Sewol-Ho disaster.

Reid : We have agreed to hold a service of remembrance at the SCI Chapel, a purpose built chapel for seafarers and the maritime community, we will unveil a ship's bell with the name of SEWOL engraved on it together with the number '304' and the date 'April 16, 2014'. The SEWOL bell will be permanently mounted in the Chapel to honor the 304.

SESAMO: Are you familiar with the various activities led by the victims' families, as well as other Koreans both at home and abroad (aka 416 Global Network), demanding the S. Korean government to carry out thorough investigations? If so, what do you think of those activities?

Reid : I have just become aware of the work that has been going on and I am inspired by the passion and commitment that everyone has, this is very important work. Too often maritime incidents do not receive the same press attention as other transportation modes, so somebody has to beat the drum.

SESAMO: We will truly appreciate if you can lend us, Philadelphia People in Solidarity with the Families of Sewol Ferry(Philadelphia SESAMO) your kind advice for future activities.

Reid : Awareness and dialogue are the tools, the more opportunities you have to speak about the story, perhaps to service clubs like Rotary and others who all look for speakers with stories of interest. Certainly the anniversary on April 16th is a special time and again to mark the moment so it is never forgotten.

SESAMO: Please tell us if you have any message for the families of the Sewol Ferry victims.

Reid : In 1980, the British bulk carrier "Derbyshire" was lost with all 44 onboard including 2 wives of the officers. This was the largest British ship ever lost The first inquiry held in 1987 concluded that this was a force majeure event. The families did not agree and they formed the Derbyshire Family Association, they campaigned for 20 years to discover the truth. In 1981, the British government had resisted a public inquiry but the efforts of the Derbyshire Family Association caused the government to appoint an inquiry and after 20 years of persistence by the families, the Inquiry reported in 2000 that the cause was a combination of a design fault and severe weather.

Quoting from the Guardian newspaper report: "The youngest crew member was 17 year old Adrian Stott, from Macclesfield in Cheshire. It was his first deep sea voyage and his last words to his mother at Manchester airport, when going out to join the ship were "Don't look so worried, mum, I'll be back."

The tireless work that the Derbyshire Family Association undertook to force the British government to hold a full and open inquiry honors all those that were lost onboard the Derbyshire. Lessons and findings can then be implemented to make sure that the future is safer for others, this is a tribute to those who gave the ultimate sacrifice.

*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Derbyshire case : <https://www.theguardian.com/uk/the-northerner/2012/oct/04/marine-life-transport> ,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1675801.stm

“우리가 지금 팽목항에 있는 건 ‘엄마’이기 때문”

“저 바닷물을 다 퍼서라도 제 딸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지난 3년 동안 팽목항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들이 있다. 3년 전 수학 여행을 떠났다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허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씨와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 이들은 “1,060일이 넘게 이곳에서 바다를 보며 견디고 있는 이유는 최소한 엄마로서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팽목항을 지키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이다. 사고 후 대부분의 희생자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 팽목항을 떠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팽목항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소망은 세월호 전체를 인양해 9명의 미수습자를 찾고 ‘유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들의 시간도 비로소 4월 17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운엄마 박은미씨는 “세월호가 올라오지 못할까 봐 가장 무섭고 겁난다,” “만약 배가 올라오더라도 ‘한 명이라도 못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지’하는 두려움도 크다”고 한다. 은화엄마 이금희씨는 세월호 인양 현장을 공개할 때 “현장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며 “혹여 인양 작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겁이 난다”며 인양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사태의 수습이 ‘아프다’, ‘잊지 않겠다’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금희씨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세월호 속에 있는 9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후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게 세월호 304명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바닷물을 다 퍼서라도...! 4.16에 멈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한국일보, 2017.3.19일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2학년 1반 조은화양, 2학년 2반 허다윤양,
2학년 6반 남현철군, 2학년 6반 박영인군,
이영숙님, 그리고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군.

세월호 속에 아직도 사람이 있습니다.
팽목항에는 지금까지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세월호가 인양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세월호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편히 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MEMORIAL SERVICE
3RD ANNIVERSARY OF
THE SEWOL TRAGEDY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모임



90 minutes to sink
 304 persons lost life
 9 persons still missing
 1097 days passed without knowing why

침몰까지 90분
 사망자 304명
 미수습자 9명
 진상규명요구 1097일째

WHEN : APRIL 16TH, 2017, 4 PM-6 PM
WHERE: SEAMEN'S CHURCH INSTITUTE OF PHILADELPHIA
475 NORTH 5TH ST.
PHILADELPHIA, PA 19123

DINNER IS PROVIDED, FREE PARKING AVAILABLE.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행사장 인근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문의 philasewol@gmail.com / Tel. 814-777-4379

ORGANIZED BY SEAMEN'S CHURCH INSTITUTE OF PHILADELPHIA
 PHILADELPHIA SESAMO -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